

사전 차단은 구호 뿐... 피해 회복은 개인 몫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수사과 금융, 통신, 행정 체계가 각각 따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범죄 조직은 빈틈을 파고들고, 피해자는 그 사이에서 고스란히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보이스피싱 대응의 핵심은 '사전 차단'과 '사후 환급'으로 요약된다. 경찰과 금융당국, 지자체는 반복적으로 예방·주의 홍보 문구를 내놓고,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두 축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 예방 캠페인과 함께 의심 거래 발생 시 즉각 신고를 당부하지만, 실제 범행은 이를 비껴가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어서다.

공공기관·학교·대기업을 사칭해 정상 거래를 가장하거나, 물품 대금·용역비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가 스스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정상 거래'라는 의형 때문에 즉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금융기관 역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 앞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체나 반복 송금이 발생해도, 거래 명목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직접 이체 버튼을 눌렀다면 시스템은

금융·통신·수사 체계 분절로 책임은 공중분해 '사전 차단' '사후 환급' 제도 대응 뚜렷한 한계 전문가들 "'피해자 중심' 관점으로 재설계해야'

이를 정상 거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피해 예방의 최종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책임의 분산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문자·메신저 등 통신망을 기반으로 시작되고, 금융 시스템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와 금융기관, 수사기관 어느 곳도 결정적 책임 주체로 나서지 않는다. 각 기관은 "우리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한 발씩 물러서고, 피해 회복의 공백은 그대로 남는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계좌 동결을 요구했음에도 은행 당국은 이를 거절했다.

이는 현행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등 명백한 사기 범죄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속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은행 관계자로부터 '피해자가 아무리 빠르게 신고했다'라도 이미 이체가 완료된 이상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현행 제도에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설명에 크게 낙심했다"고 털어놴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

만 범죄 피해금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되찾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구조는 금융 시스템이 범죄를 막기보다는 거래의 중립성만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통신 분야 역시 구조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발신번호 조작, 해외 인터넷 전화, 대포폰 유통은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지만 근본적인 차단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사칭 범죄 역시 제도적 대응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사 체계의 한계도 분명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범죄 조직의 상당수가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조치 검토가 어렵다.

국내에서 검거되는 인원은 자금 전달책이나 계좌 모집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조지 상층부까지 수사가 닿는 사례는 드물다. 이로 인해 범죄는 반복되고 피해자들의 박탈감은 누적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은 전남 지역민도 "정부가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며 "뉴스에서는 단속 성과가 나

온다고 하지만 내 사건은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 관점도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대응 체계는 범죄 예방과 수사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피해 회복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병근 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대응 제도의 기본 전제가 아직도 '피해자는 조심해야 한다'에 머물러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범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금융 분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 시스템은 단순한 중립적 통로가 아니라 범죄가 완성되는 핵심 지점"이라며 "고액 비대면 이체나 공공기관 사칭이 결합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체에 속려 기간을 두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

다. 정 교수는 "발신번호 조작이나 음성 합성 기술이 반복적으로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관리하는 플랫폼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피해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정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초국가적 범죄"라며 "국내 수사 역량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외교·사법 공조를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지원 제도 역시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통장 정지, 수사 협조, 민사소송, 심리적 회복까지 대부분의 부담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에 대해 그는 "피해자를 단순한 참고인이나 아니라 보호 대상이자 회복의 주체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며 "원스톱 지원 체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보이스피싱 문제는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 공공기관과 금융, 통신 체계를 믿고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들이 그 신뢰의 틈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끝으로 정 교수는 "지금과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름과 형태만 바뀔 뿐 계속될 것"이라며 "대응책과 제도를 고치는 동안 대가를 치르는 것은 늘 시민이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6:38	달림	06:31
맑음	18:43	달림	19:03



광주	☀️	2~14
목포	☀️	3~10
여수	☀️	5~14
순천	☀️	3~15
구례	☀️	1~15
광주	☀️	1~13
신도	☀️	3~15
흑산도	☀️	4~9
고흥	☀️	2~16
진도	☀️	3~10

목포	밀물(고)	02:14 / 14:39
	썰물(저)	07:36 / 19:57
여수	밀물(고)	09:31 / 21:45
	썰물(저)	03:06 / 15:30

'차량 절도·운전' 간 큰 10대

마넨필 ○·광주 도심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서 내부에 열쇠가 있는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절도는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

18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A군 등 중학생 4명을 불구속 입건.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아.

경찰은 "갑자기 차량이 사라졌다"는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광산구 일대를 이동 중이던 해당 차량을 발견. A군 등 4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두운 밤에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차량 내부에 열쇠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추후 A군 등을 불러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경찰 방침.

경찰 관계자는 "차량 문을 잠기지 않거나 열쇠를 차량 내부에 두는 경우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차 시 반드시 문을 잠그고 스마트키 등도 차량 외부에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구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3호점 개소

수완·우산·송정권역...스마트 건강 플랫폼 구축

광주 광산구가 건강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3호점을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산구는 18일 행복나루노인복지관 3층에서 송정 권역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 3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는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시민 건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동·영양·산림치유·공동체 활동 등 비의료적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형 건강관리 공간이다.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광산구는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100세대 지역사회 건강관리(커뮤니티 헬스케어)' 기반 조성을 추진해 왔다. 건강을 개인 문제가 아닌 관계와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해 접근하며, 전국 최초로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현재 수완(1호점)과 우산(2호점) 건강관리소 이용자는 4000명을 넘어섰고, 체계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호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등 총 12억50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특히 광산구는 3호점 개소와 함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수완·우산·송정 3대 권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건강관리소에서는 체성분, 근력, 균형능력 등 16종의 건강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결과는 AI가 분석해 개인별 건강 리포트로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처방 대상자를 선별하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또 처방 이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양성된 '건강 활동가'가 실정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이동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임영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빨간밭자 무료급식 나눔 18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광남장로교회에서 열린 빨간밭자 무료급식 나눔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고려인마을, 임시 게스트하우스 운영

광주 고려인마을이 해외에서 방문하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임시 체류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18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마을 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간으로, 광산구의 지원을 받아 시

기유와 이불 등 필수 생활용품도 갖춰졌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는 광주지역 의료기관에서 무료 수술을 받기 위해 입국한 고려인 동포들의 거주 공간으로 쓰인다. 또 고려인마을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예술단과 학

자, 연구자들의 임시 체류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오는 4월7일에는 고려인문화관 특별전에 초청받아 광주를 방문하는 카자흐스탄의 미술사학자이자 평론가인 리 까말라시도 이곳에 머물 예정이다.

5월 입국하는 고려인 동포들도 이곳에서 머문 뒤 광주 한 의료기관에서 무료 수술을 받는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광주광역시와 연계한 '주말 기상해(海)' 행사 역시 관람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인형극과 버블쇼, 만들기 체험 등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은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개관 1년

해양기상 체험하며 지역 관광까지...10만명 돌파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하 과학관)이 단순 전시 중심을 넘어 체험·교육·관광이 결합된 복합 과학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과학관은 전시해설과 체험교육, 주말 상설행사 등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과 학생층 유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24년 12월 개관한 과학관의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람객은 총 10만 85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치 8만명을 35.7%나 초과한 수치다.

유료(성인 3000원, 청소년·어린이 1500원) 운영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9049명, 일평균 297명이 방문했다. 정기

휴무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을 제외하면 실제 운영일 기준 하루 평균 방문객은 약 349명에 달한다.

특히 체험교육 프로그램에는 총 5954명이 참여해 연령별 맞춤형 시계절 교육과 탐험형·증강현실(AR) 체험이 호응을 얻고 있다. '숨으로 그린 구름 세상 만들기'(800명), '도전! 해양기상골든벨'

(602명)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547회 운영되며 8583명이 참여했다. 기상의 날, 기후변화주간, 어린이날 등과 연계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관람을 넘어 체험형 학습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초·중·고 학생 방문도 2000명을 넘어서며

교육 인프라로서 역할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말마다 열리는 '주말 기상해(海)' 행사 역시 관람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인형극과 버블쇼, 만들기 체험 등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은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여수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아쿠아리움과 함께하는 한밤의 산책'은 과학관과 아쿠아리움 관람, 식사, 야간 산책, 숙박을 묶은 체류형 상품으로, 지역 관광과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376㎡ 규모로 조성된 이 과학관은 국내 여섯 번째 기상과학관이자 해양기상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 시설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